

기독교수의 상담과 코칭을 통한 대학생 복음전도 전략 : 존재, 능력, 소유가치를 중심으로

요약문

조영우 배재대 교수

요약

2023년 상반기 모 OTT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청년들을 유혹하는 이단사이비세력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대학 캠퍼스는 이단사이비종교의 전방위적인 포교 장소가 되고 있다. 그들이 대학을 적극 공략하는 이유는 대학생들이 재정, 취업, 자기계발, 대인관계나 이성 관련 욕구가 강하게 분출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이단사이비세력의 유혹에 유독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점에 더하여 부모님이나 교회의 일방적이고 규범적인 소통방식에 평소 거부감을 느껴서 관계의 끈이 느슨한 청년 대학생들이라면 그들의 친근하며 재미있는 유혹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을 이단세력으로부터 지키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캠퍼스 복음전도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수의 상담과 코칭을 통한 대학생 복음전도 전략을 제시한다. 이 전략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 사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배고픔, 질병, 두려움과 같은 사람들의 문제해결 욕구를 무시하지 않고 채워주시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의료와 교육을 매개체로 선교를 수행했던 이유도 그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욕구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들의 모습 이면에는 본질적인 예배와 선교, 사역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면서도 취업과 같은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학생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효과적인 전략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사립대학교에서 1:1 상담과 코칭을 통하여 대학생들과의 라포(rapport) 형성 촉진, 심리와 진로 문제 해결을 통한 이단사이비종교 접근 차단, 기독교에 대한 오해 완화와 복음 전도 기회로의 연결 사례를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독교세계관에 기반을 둔 존재가치, 능력가치, 소유가치의 개념을 활용한 진로코칭으로 복음전도의 계기를 마련한 사례보고를 통하여 성공적인 대학생 상담과 코칭의 특징과 함께 실행에 있어 주의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기독교수의 상담과 코칭으로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은 이단사이비세력이 청년대학생들을 노리는 이 시기에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필요로 한다.

주제어: 기독교대학, 기독교수, 상담, 코칭, 대학생 복음전도

I. 서론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웹다큐 『나는 신이다』를 통해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이단사이비종교의 충격적인 실체가 폭로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연합뉴스, 2023, 3). 그 중에서도 가장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유혹하여 정신을 조종하고 유린하는 장면들이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이단사이비종교의 유혹에 더욱 더 취약한 이유가 있다. 청소년들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발달과정 단계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위기상황을 흔히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는 가족관계나 심리적 문제에 의한 영향력으로 발생한다(강연정, 2012: 48).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대학생 시절까지 지속된다. 대학생 시기는 신체적으로는 성년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발달의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하는 시기이다. 한국사회 특성상 청소년 시기에 학업에 대한 과중한 압박으로 인하여 원활한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여기에 불안정한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요인이 겹치면서 학업, 진로설정/취업,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적, 병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말부터 4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최이라·김혜순 2022: 768). 이단사이비종교의 팽창은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성과 청소년들의 심리적 취약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반감은 고조되면서 대학생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경우도 졸업요건인 채플교과목과 기독교 교양교과목 운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에 관한 권고(천사무엘, 2022: 10)과 비기독교인 학생의 반발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채플의 내용도 비기독교인을 의식하여 음악과 인성교육 등 기독교의 색채를 완화시키면서 직접적인 복음 메시지의 선포가 축소되고 있다. 기독교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수들의 현실도 녹록하지 않다. 201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대학의 구조조정과 입시경쟁, 연구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내몰리면서 기독교수의 정체성을 찾고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회 안팎의 시대적 위협요인에 대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독교수 본연의 교육을 통한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시대적 도전과 대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상담과 코칭을 활용한 복음전도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9-2023년 기간동안 대전 지역 기독교사립대학에서 진행되었던 직간접적 복음전도전략과 실행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여 기독교수들의 시대적 소명의 재발견과 대학 복음전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 배경

1. 시대적 상황 진단과 대학생 복음전도에 관한 새로운 관점

2023년을 지나고 있는 시기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핵심어들이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정치경제적 관점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적 관점에서는 AI기반 초연결사회로 규정되는 시기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불안정성 속에서 탈세계화로 명명되는 블록화 현상과 지역적 갈등, 분쟁이 일상화하고 있다. 개인들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외부세상을 인지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생활방식이 일상화되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화 및 다양한 SNS도구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검색엔진과 최근 등장한 chat-GPT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며 유튜브와 같은 영상미디어와 제작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취미와 창작활동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지지세력까지 결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대가 도래하였다. 개인이 정보의 창출과 습득에서 중심에 서면서 탈종교화의 추세도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대학교육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작용들도 속출하고 있다. 과거 문제가 되었던 선후배간의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민주화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발흥으로 공동체 문화가 위축되고 서로를 알아나가는 소통에 무관심해지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집단으로 모이는 문화보다 친숙하고 편한 3-5명 범위 내의 학우들과 교류하거나 심지어 혼자 다니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개인의 의존성 증가와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이러한 개인주의적 경향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대학 관점에서 이러한 탈종교화 현상과 개인주의 성향의 강화는 일견 복음전도에 위협요인으로 보인다. 기독교는 일단 예배와 집회 중심의 모임문화를 중시하는데 모임을 부담스러워하는 성향이 강해진다면 복음전도에 불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일대일로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는 노력도 과거와 달리 거부당하기 쉽다. 실제로 과거에 비하여 기독교학생회와 선교단체 참여 학생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대학생 복음전도에 위협요인으로 해석된다.

2. 대학생 복음전도의 기회

그렇다면 갈수록 파편화되고 블록화되는 대학생들의 성향은 복음전도의 위축이라는 피할 수

없는 미래로 귀결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복음전도의 기회요인으로 볼 수도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모든 복음전도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중심을 항상 개인에 두셨다는 사실이다. 12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대화를 통해 사역으로 초청하셨으며 삭개이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한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속으로 들어가셔서 문제해결을 도와주시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하시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탁월한 소통능력을 보여주셨다. 따라서 개인성향이 강화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적인 복음전도 모형에 충실한 개인중심의 복음전도 전략을 모색할 타당성을 발견하게 된다(이훈구, 2010: 9). 둘째, 구한말 조선에서 선교사업을 수행했던 서양의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하여 근대사회의 개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해력과 학문, 기술을 전수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중세시대에서 근대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던 1800년대 후반 이후 구한말 조선에 가장 필요했던 교육과 의료로 선교의 접점으로 선택했던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것을 그 이후 한국의 복음화 역사가 설명해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사들의 선교전략은 공통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전도의 원리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복음전도의 대상을 개인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속으로 들어가 필요를 적절히 채워주면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과거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왔던 대규모의 전도집회와 전도 프로그램을 통한 인원 동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김남식, 2015: 490). 과거와 달리 개인의 행위주체성(agency)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복음전도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 대학생 복음전도 전략은 첫째,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욕구, 문제해결의 필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바탕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둘째, 일방적이고 도식화된 복음 설명과 영접기도보다 대학생이 관심과 필요를 느끼는 현안에서 접점을 포착하여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셋째,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인격적인 복음의 이해와 자발적인 결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이 원치 않는 결신의 강요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반감으로 복음전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 시사점 도출을 바탕으로 기독교수가 대학생 복음전도를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I. 상담과 코칭을 통한 기독교수의 대학생 복음전도

1. 기독교수의 정체성과 사명

오늘날 기독교수가 직면한 현실은 무겁기만 하다. 201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대대적인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으로 실적과 평가에 대한 엄청난 압박에 직면한 교수들이 많다. 연구실적에 근거한 상대평가식 승진방식을 적용하는 대학도 증가하여 신입교수로 임용된 후부터 치열한 실적경쟁으로 내몰린다. 지역 소재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상담과 지도, 심지어 취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어 연구실적 뿐만 아니라 교육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교수들이 많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에 직면하여 기독교대학들은 본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버거운 싸움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대학 내부에서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사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면하셨던 현실도 오늘날과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이었다. 로마제국이 통치하는 식민지 치하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 누구나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성장하셨고 3년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안정된 재정이나 주가가 없이 이동하면서 생활하셨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2020년대 한국에서 태어나 교수가 되셨다면 다른 교수들과 다름없는 연구와 교육의 압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사역을 지속하셨을 것이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분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인내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볼 때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부담스러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지혜를 깨우쳐주실 것이 분명하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기독교수는 일반 교수와는 다른 독특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수는 세속적인 차원의 직업을 넘어 소명(calling) 차원의 학문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구원에 기여하는 학자이자 전문지식인, 인격적인 교육자이다. 또한 대학과 교회의 가교로서 구성원 간 소통을 촉진하고 때로는 진리의 수호를 위해 교회와 대학을 견제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조용훈, 2009: 208-215). 특히 급격한 시대적 변화와 학생의 교육수요가 더욱 더 섬세해져 가는 현 시기에 기독교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대학생들을 지도하며 상담, 코칭과 같은 개인소통 차원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정희정·서우경, 2022).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수의 상담과 코칭을 통한 대학생 복음전도 전략을 대학생 복음전도 방안과 사례로 제시한다.

2. 기독교수의 상담을 통한 대학생 복음전도 전략

앞서 언급한 시대적 배경과 발달과정 상의 이유로 대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저조한 학업능력으로 인한 수업 이해 어려움,

동기 및 선배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 이성관계에 대한 고민, 진로 모색과 취업 등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 두려움을 겪기도 한다. 대학생이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할 때 부모님과 상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지만 성인자녀로서 본인의 대학생활과 사생활에 대하여 부모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해결해나가는 쉽지가 않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대학생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오늘날 대학생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성인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여러 이유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부모보다 지도교수가 해결을 도와주어야 한다. 교수는 학자로서의 전문지식과 학생지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학생을 부모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상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현실적인 고민을 겪을 때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때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범죄에 휘말리거나 이단사이비종교의 마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담이나 취업지도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기독교수가 학생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상담의 개념은 전문상담이 아닌 학습과 진로, 대학생활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의 완화와 해소를 돕는 교수-대학생 간 대화과정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수업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가벼운 고민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전문성과 경험을 발휘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여 문제가 완화, 해소되면 상담이 종결된다. 만약 우울증, 공황장애, 학우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기피해, 전공 외 영역의 진로와 취업문제 등 담당교수의 전문영역을 뛰어넘는 문제일 경우에는 교내 관련기관을 소개하여 해당 영역 전문가의 상담으로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한다면 경청하여 문제의 심각도를 파악한 후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언어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면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하여 적절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진로나 취업 문제에서 교수의 전문영역을 벗어난다면 교내 취업센터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판단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교육 분야 비전공자인 담당교수라도 해도 사전에 충분한 학생지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적절한 학생지도와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수가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복음전도의 문을 여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복음전도의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가? 먼저 기독교수는 담당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도는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영혼구원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각 영혼을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복음전도의 본질임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담이 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본인에게 허락된 전문성의

범위 내에서 상담을 실시하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일 경우에는 무리한 해결책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인 답을 주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상담은 정확하지 않은 해결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 학생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으며 성인으로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행위주체성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가 시작되면 학생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은 심리적인 안정을 경험하게 되어 문제를 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넓은 범위에서 인식하게 된다. 이 정도의 성과가 도출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와의 일만한 대화를 통하여 학생은 기독교수 내면에서 표출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게 되면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게 된다.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교수와의 라포(rapport) 형성과 신뢰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대화가 일회성이 아닌 대화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평소 기독교수의 인격적인 태도와 우수한 강의, 원활한 소통의 모습을 통하여 학생은 기독교수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인식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복음전도이다. 복음전도는 직접적 방식과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직접적 방식은 학생이 먼저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동안 쌓인 신뢰감을 바탕으로 기독교수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학생이 이에 더 관심을 보일 경우 복음에 대해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지 자발적인 의사를 먼저 확인한 후 복음을 여유있게 제시할 수 있다. 이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또는 교회 출석 결단, 성경공부 약속 등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복음전도 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의 자발적인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교수는 학생의 성적과 대학생활, 취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위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학생은 교수의 의사에 반한 의견 표출에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므로 비신자 학생의 자발성을 훼손하는 복음전도는 자기모순을 범하는 것이 된다. 자발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을 경우 상담 시 교수의 복음전도에 응했던 학생이 상담 후 종교 강요로 이익제거나 신고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접적인 복음전도 방식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대학생에게도 효과적이다. 이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지도교수의 면담 시 기독교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학생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여는 경우라면 복음전도가 가능하다. 특별한 계기가 없이 바쁘거나 이사 등으로 교회 출석을 중단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복음전도를 통하여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출석을 중단한 경우라면 복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외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학문,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일반계시의 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채플 교과목에서 관련하여 깨달은 점은 없었는지, 기독교에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는지 질문해볼 수 있다. 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한 후 자연스럽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진리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다.

간접적인 복음전도는 직접적 복음전도의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인생이나 종교적인 의미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경우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학생이 요청한 상담의 취지에 충실하게 응하여 심리, 대인관계, 학업 등 학생이 원하는 문제해결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간접적 복음전도는 그러한 대화의 과정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에 보편적인 기독교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예를 들어, 진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과연 그러한 기준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어떠한 대화도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없다. 특정한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자라는 모든 사람은 의식 여부에 상관없이 특정한 가치판단을 대화에 투영한다. 무신론조차도 특정한 하나의 사상이자 가치관으로서 대화에 투영된다. 따라서 학생의 생각을 존중하되 인류보편적인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직접적 복음전도와 함께 기독교수 사역의 한 핵심 축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간접적 복음전도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은 교수의 인격과 전문성을 통해 배움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신뢰감과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경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직접적 복음전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올 수 있다. 재학 시절 중 그러한 직접적 전도의 전환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간접적 방식은 두 가지 유익을 제공한다. 첫째, 대학 시절에 만난 기독교수의 영향력으로 졸업 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경로가운데 예비하신 다른 전도자를 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둘째,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수에게 받은 가르침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학생들을 추적 조사할 수는 없으나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간접적 복음전도 사역에 적극 임해야 할 이유이다.

3. 기독교수의 코칭을 통한 대학생 복음전도 전략

앞서 논의한 상담과 달리 코칭은 부정적인 심리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현재에서 미래의 목표지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대화기술을

사용한다. 상담의 목표가 문제의 완화와 해소라면 코칭은 현재의 모습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미래 목표지점으로 더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희정·서우경, 2022: 228). 예를 들어, 심리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상담을 통하여 -7인 불안요소가 -4 정도 수준으로 완화되었다면 성공적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코칭을 통하여 +2 정도인 긍정적 요소를 +5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면 성공으로 볼 수 있다.

상담의 주제가 심리, 대인관계, 학업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면 반면 코칭의 주제는 진로와 취업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이다. 이러한 코칭의 성격으로 인하여 상담에 비하여 심리적 부담감이 적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칭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심리적 상태가 +방향 선상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 에너지와 성취동기가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코칭의 핵심기술인 경청과 공감,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질문, 인정과 칭찬, 건설적인 피드백(요청과 제안 등)을 활용하여 학생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강점을 더 강하게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화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코칭대화를 마친 학생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성취욕이 강해지며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코칭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교수와의 신뢰감이 구축되면서 상담에서 언급한 직접적 복음전도의 접촉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접촉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인간의 존엄성(하나님의 형상), 사랑, 자유, 섬김, 배려, 용서 등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코칭대화를 이어나가는 간접적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한편으로 학생과의 개인 상담 및 코칭사역을 계획하는 상담 분야 비전공자인 기독교수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상담심리학에서 다루는 전이(transference)와 역전이(countertransference)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전이란 내담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이 반영된 감정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말한다. 역전이는 내담자가 전이시킨 감정에 반응하여 그에 기대 되는 역할에 따른 감정을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여학생이 교수에게 이상적인 아버지 역할을 투사할 경우 그에 반응하여 교수가 아버지의 역할에 따른 감정을 역전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이와 역전이는 전문상담자가 숙지하고 주의하며 때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다(하재성, 2008: 268). 따라서 비전공자인 기독교수가 이러한 점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사적 관계가 과도하게 진전되거나 정상적인 범주를 넘은 사생활 개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상담 분야의 비전공자인 기독교수의 경우 전문적인 심리상담은 전문가에게 인계하고 본인의 전문성이 허용하다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상담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칭의 경우 상담과 마찬가지로 학생과의 친밀감 형성이 중요하지만 상담과는 달리 심각한 개인의 내면적 문제보다는 학업성과 도출이나 비전 설정, 취업대 비와 같은 미래지향적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이, 역전이에 따른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적으며 상담보다 전문성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서 기독교수의 사역에 활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IV. 기독교수의 상담과 코칭 기반 복음전도 사례: 배재대학교

앞서 논의한 기독교수의 대학생 복음전도 전략을 바탕으로 2009년에서 2023년도까지 14년 기간 중 대전 지역의 기독교사학인 배재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직접적, 간접적 복음전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한다. 졸업생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아 연구 관련된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한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고 동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개인의 비밀보장에 위협이 될 소지가 큰 성격을 감안하여 학과와 학생, 상담 및 코칭의 구체적인 묘사에 제약이 있음을 먼저 밝힌다. 먼저 학과 차원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와 대학 차원에서 지역사회로 이루어진 간접적 방식의 복음전도 사례를 보고한다.

1. 존재, 능력, 소유가치의 자각을 통한 복음전도 전략

2009년 30대 중반에 배재대학교 000학과에 부임한 기독교수 A는 배재대학교 교수선교회 회원으로서 2023년 현재까지 14년 동안 대학생 복음전도 사역을 수행해왔다. A교수가 진행한 복음전도 사역은 존재, 능력, 소유라는 세 가지의 가치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존재가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부어서 만드신 신적인 형상이 담긴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말한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이 규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이 기록되어 있다.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사람의 고유한 존재가치는 오직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만 확인된다. 다음으로 능력가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가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적 가치의 성격을 지닌다. 아무리 소중한 존재가치를 가졌다고 해도 고정적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는 문화대명령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복의 개념은 피정복지로 나아가 통치의 영역을 확장하는 변화와 행동을 전제로 한다. 다스리는 것은 다스림의 능력을 발휘하는 통치행위를 수반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여 새로운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에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종이 심판을 받아 내쫓기는 원리도 능력가치를 배양하여 확장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증하고 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인 ‘아바드’와 ‘지키다’에 해당하는 원어 ‘사마르’는

후에 성막에서 일했던 이스라엘 제사장의 직무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동일한 단어로 알려져 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태초에 부여하셨던 직무가 왕이자 제사장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Fesco, 2007). 이를 종합해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의 존재가치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구절로도 뒷받침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된 본질적 신분이다.

능력가치는 그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왕이 가진 능력과 하위무사가 가진 능력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을 엄청난 능력이 잠재된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인본주의적 관점과는 달리 성경은 사람의 능력가치가 사람 고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비 롯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로마서 12장 6-8절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gift)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사람에게 각 개인별로 부여하신 존재가치를 이루는데 필요한 독특한 은사, 재능,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치를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궁극적인 내 존재를 확신하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본으로 삼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잠재된 은사, 재능, 능력을 꾸준히 배양하여 소명에 따라 발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유가치는 능력가치를 실제로 발휘할 때 얻는 결과적 가치이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될 “생명의 면류관”(야고보서 1:12)과 구원받은 자녀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미태복음 25:34)받게 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 존재가치를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가치를 실현하면 그 결과 소유가치가 주어지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망각하고 오직 능력가치만을 높여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소유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능력가치를 높이는데 성공하여 높은 수준의 소유가치(돈, 부동산, 사업체 등 소유물)를 획득한 사람을 향해 성공이라는 칭호를 붙여준다. 반대로 소유가치만을 우선적인 가치로 추구하게 되면 능력가치를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타인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거나 훔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는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또는 능력가치를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타인이 가진 소유를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능력-소유가치를 보유한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존재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닫고 존재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정당한 소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존재-능력-소유가치의 순서로 개념화하여 강의와 상담, 코칭에 적용하였다.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 존재가치를 소개할 때는 ‘자존감’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소개하였고,

‘능력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교육심리학의 ‘자기주도학습’과 ‘자기조절’ 개념을 활용하였다. 소유가치의 개념은 학생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돈이나 명예, 인기, 높은 지위, 좋은 직업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며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여 존재가치를 달성할 때 결과적으로 누리는 소유가치임을 깨닫게 해주는 방식으로 교육하였다. 이렇게 개인 복음전도에 앞서 강의와 독서과제, 교수와의 소모임 활동, 식사, 티타임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성경적 관점의 맥락을 형성한 후 학과 단위와 대학 전체 차원에서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복음전도 사역을 차례로 진행하였다.

2. 학과 단위 복음전도 사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전공수업에서 시작되었다. 신입생들은 입학 후 채플 교과목과 함께 필수교양교과목으로 기독교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학과에서 제공하는 1학년 1학기 전공 핵심교과목에서는 기독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자존감을 주제로 나 자신의 소중함과 타인의 소중함을 다양한 책과 동영상 사례를 통하여 배운다. 강의 중 교수는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기독교인인 닉 부이치치와 레나 마리아의 동영상을 통하여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신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세상에 희망을 준 인물들에게 도전을 받는다. 지방사립대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업과 입시에서 좌절감과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러한 강의내용을 통하여 진정한 자존감의 의미를 깨닫고 학벌이나 외모와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닌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소중함을 자존감의 근원으로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강의내용의 바탕에는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존재가치라는 성경적 인간론이 자리잡고 있다.

2009-2015년 초기 사역 기간 동안 A교수는 학생 개개인에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며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2009-2014년 사역 초기에는 주로 학생들의 학업, 심리, 대인관계 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상담 유형으로 대화가 진행되었다. 신설학과로서 선후배간 관계 형성과 학생회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수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A교수는 학생들과의 식사모임과 티타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였고 많은 학생들과 원활한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난 학생 1의 경우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경우로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습상담과 지도를 요청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만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지도에 잘 응하였고 지속적인 학습지도가 1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학습성도가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생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으로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제시하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학생1은 대학원까지 진학하여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재학 기간에는 A교수와 성경공부를 통한 양육도 받았다. 졸업 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2023년도 까지 지속적인 교제를 해오며 중보기도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반면 학생 2의 경우에는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업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앞으로의 인생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열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오늘날 지역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직접적인 복음전도의 결과로 영접을 하거나 교회에 출석을 한 학생들이 약 50명에 달했다. 그러나 출석이 1회에 그친 학생들이 대다수였고 2-3회 출석하다가 중단하거나 1년 이상 출석 후 교회 출석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졸업 후 연락이 끊긴 학생들이 대다수이므로 현재 교회 출석 여부를 정확한 파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직접적 복음전도로 장기간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10명에 그쳤다. 이는 결신과 교회 출석까지 진행된 경우에도 지역교회에 정착하는 과정과 신앙교육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복음전도 사례들도 있었지만 이 당시 직접적인 복음전도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대화 과정에서 학생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이 있을 경우에만 직접적 방식의 복음전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접적 방식의 복음전도가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보편적인 성경적 가치관이 반영된 강의와 상담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성과와 한계, 부작용이 각각 나타났다. 성과로서는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기독교수의 평소 언행과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기독교나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나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었음을 보고한 학생들이 나타났던 것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학생 3의 경우는 재학 시절 기독교인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거부하였고 A교수의 권면에도 응하지 않았으나 졸업 후 모교를 방문하여 본인이 회심하였음을 말하며 재학 기간 중 부족한 모습에도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잘못을 용서해주었음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간접적 복음전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졸업 후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당시 A교수가 상담에 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여 발생했던 부작용도 있었다. 학생4의 경우 학업과 대학생활의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가정에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A교수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대화에 임하여 깊은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었다. 상담 후 학생 4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교수에게 적극적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상담 이후 태도가 변화되어 A교수와 거리를 두는 양상을 보였다. 후에 나눈 대화를 통하여 교수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에 마음이 열려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상담 후 감정을 진정시킨 후 생각해보니 자신의 민감한 이야기를 한 것에 수치감을 느껴 A교수를 피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를 통하여 A교수는 상담의 주제에 따라서 전문성의 영역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함과 내담자와의 이종관계를 회피해야 하는 전문상담의 영역으로 들어가

지 않도록 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학생 5, 6, 7의 경우 가정문제와 심리적인 문제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졸업 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4의 사례는 상담에 앞서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민감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초기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연구년 기간 중 코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코치 자격까지 취득한 교수A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코칭사역을 전개하였다. 전공교과목에서 학습코칭을 실시하였고 코칭 전공교과목을 개설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반영한 코칭에 대한 강의를 전개했으며 학생 개별적으로 코칭을 실시하였다. 문제 중심 상담 위주 사역에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코칭 개념의 사역으로 초점을 전환하여 사역하면서 초기 사역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의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A교수의 전문성 수준을 넘는 민감한 주제에 관한 상담은 대학의 학생상담실과 정신의학과로 연계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안내하였고 사역은 학생의 학습과 진로 분야에서의 발전을 추동하는 학습지도 및 코칭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난 학생 8과 9는 대화 과정에서 보다 본질적인 인생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였고 이 고민을 매개체로 결국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여 신앙생활로 안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2023년도 시기는 2009-2015년 시기와 비교하여 학생들의 성향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학과가 안정적인 단계로 발전하고 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서 교수들과의 접촉빈도가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복음전도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결신하는 학생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이 시기에는 코칭을 통하여 이미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과가 두드러졌다. 학생 10의 경우 학업성도가 우수한 학생으로서 A교수의 성경적 가치가 반영된 강의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연구실에 찾아와서 학업과 진로를 주제로 지도와 코칭을 받았다. 졸업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결국 좋은 취업성과를 이루었다. 취업 후에는 향후 경력개발과 사회생활 속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로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이단사이비종교 문제와 관련하여 이단으로 알려진 000단체에 빠진 학생 11이 있었다. 상담을 통하여 이단에 빠진 것을 감지한 교수A는 추가적인 대화를 통하여 경로를 알아낼 수 있었고 전문성에 대한 한계를 느껴 지역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와 공조하여 이단단체에서 학생 11을 구출해낼 수 있었다. 또한 학생 12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대학 외부에서 진행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상하게 여겨 조사한 결과 그 단체가 이단으로 판정을 받은 000의 외곽단체임을 인지하고 학생 12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 참석 초기단계였던 학생 12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한 후 A교수가 추천한 지역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기독교수가 상담과 코칭을 통하여 대학생 개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경우 재정과 심리, 대인관계 어려움, 진로와 취업 등 문제를 연결고리로 유혹하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마수에 빠질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내에서 기독교수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 세대 복음전도의 최전선에 위치한 기독교대학과 기독교수들의 사명과 역할의 중요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학과에서 이루어진 사역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기의 상담중심 복음전도 사역 결과를 바탕으로 후기에는 코칭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하여 초창기 사역의 부작용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반대로 직접적 복음전도의 성과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 이후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비대면 강의의 제약으로 학생들과 접촉면이 줄어들고 충분한 교류와 대화에 제약이 발생한 영향도 컸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단사이비종교로 가는 경로 차단과 지역교회로의 우회를 돕는 역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문제 해결 지원을 통하여 졸업 후까지 교류가 지속되는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했던 부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3. 대학 단위 지역사회 복음전도 사례

A교수는 2011년 복음전도의 사역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학과 동료교수 B와 협력하여 대전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코칭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22년까지 매년 1회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여름방학 기간동안 대전 지역 소재 중고등학생(과반수가 고등학생)을 배재대학교 캠퍼스로 초청하여 학습코칭과 소그룹활동, 비전특강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재학생들에게는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코치로 참여하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교수진은 뒤에서 지원하고 특강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상급생 중에서 학업능력과 리더십이 우수한 학생 1인을 대표코치로 선발하고 대표코치와 협력할 부대표코치 2인을 선발하여 협업하도록 했다. 전체적인 지침을 전달한 후에는 학생코치들이 함께 회의하여 차기 주차 계획을 수립하였고 중고등학생들과의 소그룹활동도 재량껏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시간에는 대학생 코치들과 중고등학생 코치이(coachee, 피코치)들이 간식을 함께 나누며 관계를 쌓아나가는 시간도 포함되었다. 또한 주중에는 전화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대학생 코치의 1:1 학습상담과 코칭을 진행하였다. 6-8주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학과에서 실시했던 자존감, 배려, 소통, 리더십과 같은 성경적 가치관을 반영하여 학업으로 지쳐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소중함과 타인 존중과 배려, 쌍방향 소통과 미래지향적인 진취적인 가치관, 역경을 극복하는 자세인 GRIT (Duckworth, et al., 2007)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성찰일지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는 먼저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얼굴 표정에서 먼저 나타났다. 개회식에서 교수진을 향해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고 어두운 표정이었던

얼굴도 폐회식에서는 밝은 표정으로 대학생 코치들과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표현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헌신적으로 섬겨준 데에 대한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성찰일지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배재대학교의 교훈인 섬김과 배려의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한 깨달음과 개인적 성찰이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대학생 코치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인관계와 학업에서의 자신감 상승을 표현한 학생들도 다수였다. 반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토요일 아침 일찍 기상하지 못해 결석을 지속하다가 중도포기하기도 하였고 학원 출석이나 가족여행으로 인하여 중도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이 프로그램이 단회성이 아닌 6-8주간 지속적인 장기적 성격을 지닌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폐회식에서 수료한 학생들은 이 역경을 뛰어넘은 학생들로서 프로그램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상장을 받으며 뿌듯한 경험을 했던 기억을 보유했기 때문에 후에 복음전도자를 통하거나 또는 교회에 출석하여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영광의 면류관의 개념을 접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적 복음전도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대학 내 프로그램이 아닌 외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종교적인 편향성에 대한 민감한 시비 발생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이 향후 삶 속에서 직접적인 복음전도를 접했을 때 과거 간접적 복음전도를 접했던 경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이단사이비종교의 위협에 대응하여 기독교수의 상담과 코칭을 통한 직간접적 청년대학생 복음전도 전략을 제시하고 대전 지역 기독교의 실제 사역 사례를 보고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한말 서양 선교사들의 모본을 바탕으로 오늘날 대학생들이 처한 심리, 학업, 대인관계, 진로, 취업 상의 개인 문제해결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직접적 복음전도와 성경적 가치관의 간접적 공유를 통하여 도출된 성과와 한계점, 유의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더 많은 기독교수들의 사역현황이 공유되고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관점에서의 인식과 대학생과 쌍방향 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과 코칭 대화기술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도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 향후 기독교수들이 상담과 코칭기술을 습득하여 복음전도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다양한 전공분야에 종사하는 기독교수들의 분포를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기독교대

학의 성격과 기독교수의 성향과 강점 및 전공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A교수의 경우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전문코치, 학습과 진로상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기독교수의 경우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복음전도 전략 수립도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공유도 생산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비기독교대학 소속 기독교수들의 경우 기본적인 모형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 1인의 사례를 보고한 연구방식의 한계와 종교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좀 더 상세한 묘사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고려하여 좀 더 객관적인 연구 설계를 통한 기독교수의 복음전도 사역 현황과 촉진 방안에 대한 추후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연정. 2012. 교회 위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독교 교육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 18, 43-75.
- 김남식. 2015. 한국교회 프로그램식 전도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대안. 『신학과 실천』 . 46, 479-510.
- 김희정 역(2012). 『태초의 첫째 아담에서 종말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까지』, Fesco. J. V (2007). Last things first. 서울: 부흥과개혁사.
- 이훈구. 2010.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전도 사례연구. 『복음과 선교』 , 13, 153-181.
- 연합뉴스 2023. 3. 7일자. “사이비 종교의 피해 폭로”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134500005>(검색일 2023. 6. 3)
- 정희정·서우경. 2022. 크리스천 코칭에 관한 주관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 73, 225-261.
- 정희정·서우경. 2022. 기독교 상담 코칭 시각에서 바라본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 인식: Q분류(Qsorting)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 27, 5-30.
- 조용훈. 2009. 기독교수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대학과 선교』 , 15, 197-220
- 천사무엘. 2022. 기독교대학 채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고찰. 『대학과 선교』 , 51, 9-33.
- 최아라·김혜순. 2022. 대학생의 코로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 13(1), 757-782.
- 하재성. 2008. 목회와 상담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감정과 기독교적 영성. 『복음과 상담』 . 11, 267-293.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1087-1101.